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경진대회를 참관하고..

배 온 희
한국지진대비연구소장

2016년 11월 30일 아침 10시 반부터 더 케이호텔 경주점에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류재용) 주관으로 민 · 관 합동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오전에는 의식행사로 2016년도 재난관리 유공자들에 대한 회원들을 표창하였다. 곧이어 첫 번째 순서로 특강 “지진! 이렇게 대비하자“는 지진강의가 한국지진대비연구소(한국방재협회) 배온희 소장에 의해 진행되었고 점심식사 후에는 ”재난대응구조.구급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경진대회 후, 오후 늦은 시각에는 굿 마이크 표영호 대표로부터 교양강좌 ”소통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들었다.

오전 “지진! 이렇게 대비하자는 특강시간에는 260여명의 경북 23개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경주지진을 예시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다만 지정학적 특징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항상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진발생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집의 지진대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재난 지역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식량, 물, 구급약, 손전등, 소화기 등 필수준비품목들의 준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조직과 같은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들은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구조 구급과 재난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구조, 구급은 경우에 따른 대처방법을 공부하고 숙달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원래 90분 강의가 예정되었으나 각 지역으로부터 경주로 모이는 통로인 고속도로에 아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시작이 한 시간 반 지연되는 바람에 강의도 한 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 많은 지진대비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 호텔 마당 위치한 운동장에서 경진대회가 시작되었다. 경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재난훈련을 보면서 15년전인 2001년 동경에서 관동대지진을 기억하며 5년마다 열리는 지진재난 대비훈련을 참관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참관하고 헬기가 동원되어 인명을 구조하며 화재가 난 건물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매몰된 사람들을 구하는 등 구조 구급을 하는 모습과 재난의 각 상황을 연출하는 모습, 그리고 식량 물등을 공급하는 대규모 훈련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새로웠다.

2001년 동경 지진대비훈련 모습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그와 비슷한 재난대비 훈련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경진대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흐뭇하였다. 일본정도 규모는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재난 훈련을 하고 경진대회까지 하는 모습들이 대견하게 여겨졌다.

날씨는 아침에 부슬비가 내린 겨울의 날씨라 음산하고 약간 추웠다.

경진대회에서 나는 의뢰받은 대로 오전에는 지진강의, 그리고 오후에는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경진대회가 시작되기 전,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요령에 대한 개략적인 발표를 하였다.

경진대회 단계별 진행은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여 심사위원장이 재난상황을 부여하였다. “2016년 11월 30일 14시경 경주시 부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케이호텔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붕괴로 화재 및 인명피해 4명이 발생하였으니 긴급 출동하여 부상자를 구조 구급하고 화재를 진화하기 바랍니다.”라는 상황을 부여하면, 팀장은 부여받은 재난상황을 가지고 1,2,3,4단계로 재난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1단계로 팀장은 팀원 7명을 비상소집하여 현장에 집결시킨 후 리더로서 팀원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다. 팀장을 포함한 8명은 개인 보호 장비착용 및 구조 구급에 필요한 장비로 안전모 착용, 들것 2개, 부목과 삼각끈 3세트, 경추고정 부목 1세트, AED1세트, 방독면 2개를 구비하여 재난발생 현장으로 긴급출동 시킨다.

팀장으로부터 임무를 전달 받는 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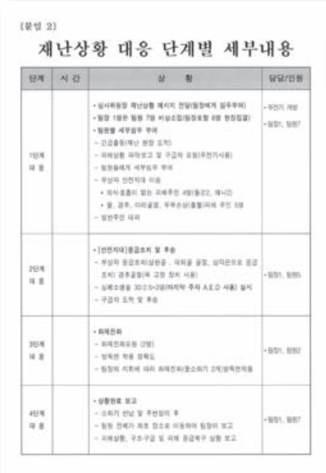
현장에 도착하면 2단계가 시작된다. 2단계 대응은 응급조치 및 후송을 하는 조치이다. 재난진행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팀원별로 세부 임무를 부여한다. 사상자를 I(immediate 긴급), D(delayed 지연), M(minimal 최소), E(expectant 사망예상)로 분류하여 부상자는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부상자치료를 시작하였다. 부상자 응급조치로는 상완골, 대퇴골 골절로 삼각끈으로 응급조치하고 경추골절에는 목 고정장치를 사용하였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인(Rescue Anne은 아니었지만) 으로 심폐소생술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실시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오전에 비가 와서 습기가 많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급차로 후송하는 조치를 가상으로 완료하였다.

3단계는 화재진압이었다. 팀장은 화재현장을 파악 후 팀원에게 화재진화를 지시하였다. 팀원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소화기 두 개를 들고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응급조치하는 모습

화재를 진압하는 팀원들

임무를 종료하고 해단하는 팀원들



[붙임 2]

재난상황 대응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	시 간	상 황	담당/인원
1단계 대 응		[illegible]	[illegible]
2단계 대 응		[illegible]	[illegible]
3단계 대 응		• 화재진화 [illegible]	[illegible]
4단계 대 응		• 상황완료 보고 [illegible]	[illegible]

화재가 진화되면 마무리 4단계로 팀원 전원이 현장을 정리하고 최초 장소로 복귀하여 피해상황, 구조 구급 및 피해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하여 최종으로 상황을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해산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보고하고 실시하는지를 심상위원들이 배정된 점수에서 감하는 형태로 채점을 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는 경진대회였다.

심사위원장이 재난상황을 부여하면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소화기와 들것을 가지고 인명구조에 나서고 마네킹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부상자 치료는 사람에게 직접 하였다. 부목을 대고 삼각건으로 팔과 머리 상처를 치료하며 부상자들을 옮기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소화기는 한팀이 두 대씩을 가지고 가서 화재를 진압한 후 마무리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동경 지진대비 훈련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매뉴얼대로 경진대회를 치루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실제 상황 발생시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훈련들이 되어 있었다. 소화기 핀을 뽑는 데는 그냥 돌리면 편한데 그건 잘 모르는지 그냥 잡아 빼려고 하니까 애를 먹는 것 같았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로 각 팀의 경기는 종료를 하였다. 아직은 매우 숙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훈련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이번 참가팀은 1조에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2조에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3조에 경산시, 근위군, 의성군, 청송군, 4조에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5조에 예천군, 봉화군, 영덕군 등 18개 팀이 참여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였다.

경기가 종료되고 대상은 문경시, 최우수상 구미시, 우수상 청송군, 장려상 경산시 . 안동시 선수단이 받았다.

문경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봉화군 재난안전네트워크

안동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경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는 2006년 11월 3일 구미시 사곡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후 경북소재 단체로 정회원 11개 기관(대한 간호협회, 대한 의사협회, 경북안실련, 모범운전자회, 대한적십자사, 새마을회, 종합자원봉사센터, 특수재난구조대, 대한산악연맹, 해병대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등 총 67만여명) 협력회원 9개기관(경상북도, 안전보건공단경북지사,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교통안전공단, 김천대학교, 선린대학교, 도로교통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5400여명) 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재난대응 경진대회를 매년실시하고, 간담회 또한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협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으며,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전문구조요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9.12경주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지역 복구지원활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안전전문강사 양성,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취약계층에 단독형 화재경보기 설치 및 소화기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